

여수시, 남해안 남중권 ‘해상풍력 메카’ 꿈꾼다

산자부 단지개발 지원사업 선정
국·시비 29억·민간자본 50억 확보
여수산단 탄소중립·바람연금 추진
“선진방식 적극 도입해 속도 낼 것”

여수시가 지난 2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총괄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전담하는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수행기관 공모)’에 최종 선정되면서 ‘남해안 남중권 해상풍력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7일 여수시에 따르면 이번 공모로 국비 21억

7500만원을 확보했으며 시비 8억원과 민간자본 50억 2500만원 등 총사업비 8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6년까지 3년간 3GW 규모의 신규 해상풍력 단지를 개발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여수국가산단의 탄소중립 대책 마련 △여수시와 녹색에너지연구원, 민간투자기업 연합체(컨소시엄) 구성 △지역주민과 발전소 운영 이익을 공유하는 ‘바람연금’ 추진 등을 골자로 공모에 지원했다.

민간투자기업으로는 공기업 4개사, 국내기업 5개사, 외국계 기업 3개사가 참여의향서를 제출했으며 10월 중 세부 협약을 통해 최종 사업자를 선

정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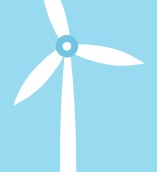
정부 주도로 추진하는 것은 재정 안정성과 사업 성공률을 높이고 정부의 입찰 계획에 반하지 않으면서 민간투자자의 투자 효능감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여수시 관계자는 “여수는 8m/s에 이르는 안정적인 풍속과 넓은 바다를 가지고 있으며, 단일규모로는 세계 최대 수준의 석유화학단지인 여수국가산단과 광양 포스코, 하동 화력 등 확실한 전력 소비처가 인접해 있고, 군 작전구역이 동·서해안에 비해 적은 편으로 해상풍력사업의 적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수시가 해상풍력의 후발 주자로 뛰어난 만큼 국내 선진지에서 시도하고 있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정부 주도형 해상풍력 단지 개발을 병행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2032년까지 총 9G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민간 사업자가 산업부 허가를 기취득한 4.5GW 포함 6GW에 대해서는 ‘지자체 주도 집적화단지’ 방식으로 추진하고 신규 공공개발단지 3GW에 대해서는 ‘정부 주도 계획입지’로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여수=이경기 기자



‘국내 해상풍력 선진지’ 목포 견학

부시장 등 여수시청 공직자 30인
목포해양대·울촌산단 등 방문

여수시의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급부상 중인 해상풍력사업을 위해 시청 공직자 30인(관련부서장 및 팀장 등)이 지난 23일 목포신항과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울촌산단 현대스틸산업 등 선진지 견학에 나섰다.

시찰단은 먼저 목포신항에 도착해 전남도청 배용석 해상풍력산업과장으로부터 △공공주도 해상풍력 추진 방향 △목포신항만 활용 계획 △배후 항만 및 산업단지 확장 조성의 필요성 등 설명을 들었다.

이어 국립목포해양대학교에서 해상교통안전전진단사업단 김철승 교수의 ‘여수권 해상풍력단지 조성 가능 구역 및 전력 계통 연계 방안’에 대한 강의가 이뤄졌으며, 마린시물레이션센터에서 고흥해상풍력단지 내 조성된 김 양식장을 5톤 선박으로 이동하는 가상 체험을 통해 해상풍력과 수산업 공존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

했다.

마지막으로 울촌산단 내 현대스틸산업을 방문하여 이재민 공장장을 통해 국내 98%에 달하는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납품 실적과 국내 유일 10MW급 설치선 ‘현대프론티어호’ 보유현황을 확인했으며, 하부구조물 해상 운반 한계 등 공장 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시 관계자는 “여수시는 기후변화대응 선도도시로서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와 ‘2050 탄소중립’ 실현하고, 수산업이 공존하는 해상풍력사업의 성공 추진을 위해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6일 ‘전남도·9개 시군 해상풍력 상생협력 간담회’에 정기명 시장이 참석하여 목포신항에 배치된 전남해상풍력 발전단지 9.9MW 터빈 10기를 비롯해 타워, 블레이드 등을 시찰하였으며, 전남도의 ‘해상풍력 대표산업 육성’, ‘바람연금을 통한 지역소멸 대응’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30일부터 진남관 일원에서 ‘여수 문화유산 야행’

여수시는 오는 30일부터 9월1일까지 3일간 진남관 일원에서 ‘2024 여수문화유산 야행(여수총쇄록 문화유산 답사기)’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으로 매년 추진 중인 ‘여수문화유산 야행’은 단순한 문화유산 관람 형태를 벗어나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 ‘7야(7夜)’로 구분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또한 올해는 기후변화 위기 극복을 위해 ‘재활용(업사이클링)’ 요소가 접목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난해와 차별점을 뒀다.

올해 야행 프로그램은 △야경(夜景): 여수 야행 거리조명 △야로(夜路): 전라좌수영 성터길 투어 △야사(夜史): 비파형 동검 열쇠고리 만들기 △야설(夜設): 100인 재활용(업사이클링) 음악회 △야화(夜畵): 길 위의 문화유산 벽수 △야식(夜食): 해풍속 인절미와 수정과 맛보기 △야시(夜市): 내레포 장터 등이다.

시민, 관광객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여 후 지급되는 8개의 도장을 모으면 여수 특산품으로 교환 받을 수 있다. 또한 진남관 곳곳에 ‘보물찾기’ 쪽지가 숨겨져 있어 발견 시 소정의 상품을 받을 수 있다. 31일 저녁 7시 30분에는 이순신광장 일원에서 ‘문화유산 야행의 밤, 그날의 여수총쇄록’을 주제로 개막식이 열린다. 식전 공연으로는 저녁 6시부터 ‘전라좌수영 독제’와 ‘여수 마칭 퍼레이드’가 펼쳐질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과 야행 프로그램 사전 예약 등은 공식 홈페이지(www.여수문화유산야행.com)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평소 잘 알지 못했던 우리시의 역사·문화유산에 대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뜻깊은 기회가 되길 바라며, 가족 단위의 방문객이 많이 찾는 행사인 만큼 자녀와 유익하고 즐거운 추억을 쌓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여수시가 지난 24일 돌산을 방죽포해수욕장 일대에서 개최한 시민주도형 마을축제 ‘돌산갓고을한마당 갓섬피크닉’에 관광객 500여 명이 찾는 등 큰 호응속에 종료됐다.

여수시 제공

돌산갓고을한마당 ‘갓섬피크닉’ 성료

여수시가 지난 24일 방죽포해수욕장 일원에서 개최한 ‘돌산갓고을한마당 갓섬피크닉(두 번째 이야기)’에 500여 명이 방문해 성황 속에 종료됐다.

‘갓섬피크닉’은 돌산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시민 주도형으로 기획되는 마을 축제로, 이번에도 돌산갓청년법인과 시민기획단이 의기투합하여 지난 4월 봄 축제에 이어 여름 축제를 마련했다.

이번 축제는 ‘뚝박의 탐구생활’을 주제로 △해변 및 솔밭 체험 프로그램 △자연 도서관 △해변 그네 △모래 소파 △도둑게 찾기 △모래성 쌓기 경연대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준비됐다.

또한 갓섬치를 활용한 △가위를 이긴 주먹밥 △갓섬 떡볶이 △컵 물회 등 독특하면서도 간편한 식·음료로 방문객의 만족감을 높였다.

특히 △폐현수막을 이용한 해변 그늘막 △재사용 대나무로 만든 바다 위 그네 △폐품을 활용한 모래 위 촬영 구역(포토존) △쓰레기 되가져가기 인증 시 갓김치 제공 등 환경을 생각한 축제 아이디어로 호평이 이어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축제를 계기로 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주도하는 마을 축제의 성공 가능성을 재확인했으며, 자연과 공존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고향사랑기부제 “기부하고 요트타자” 참여 이벤트

여수시는 추석 연휴인 오는 9월18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이벤트 ‘친구야, 기부하고 요트타자’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본인을 포함한 2인이 한 팀이 되어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10만 원

이상 납부했을 때 응모할 수 있으며, 여수 시민이 타지에 사는 지인 2명을 추천하여 행사에 참여할 수도 있다.

경품은 △여수요트케빈 이용권(3인용) 15만원권(1명) △해상시티투어(1인용) 3만원권(2명) △여수시상품권 3만

원권(3명) 등이다.

참여 방법은 ‘여수사랑 고향사랑기부제’ 카카오톡 채널에서 친구 추가한 후 대화창에서 신청인과 기부자 정보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9월20일 추첨을 통해 당첨 결과를 시청 누리집에 공지하고, 당첨자에게 개별 연락할 예정이다.

여수=이경기 기자

‘전세 사기 예방’ 위해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점검

여수시가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1월30일까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에 나선다.

27일 여수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주거 안정은 물론 삶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

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들의 부동산 거래 사고를 예방하려는 취지다.

주요 점검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 부동산 허위 표시 광고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작성 및 손해배상 책임보험 미가입 행위

△소속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고용신고 여부 △무등록 중개행위 △옥외광고물 표기 적정 여부 등 공인중개사법에 기반한 것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여수=이경기 기자